

논개고을 푸른장수

탄신 429주년기념·제36회 군민의 날

의암 주논개 대축제

2003

9.26 ~ 9.28 (3일간)

장수군 일원



■ 주최 : (사)의암 주논개정신선양회 / 장수군 / KBS전주방송총국



의암 주논개 약사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이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봄, 장수현감 최경희의 심리로 재판됨.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낙안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희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희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시 부사의 아내가 됨.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가자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9세) 최경희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계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논
개
고
을

푸
른
장
수



군민헌장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삼절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밝고 맑은 심성으로 산자수명한 내 고장을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1. 우리 군민은 자유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주문화를 꽃 피운다.
2. 우리 군민은 양심과 신의를 지키고 협동봉사하며 공공질서를 생활화 한다.
3. 우리 군민은 근면 성실하며 진취적인 의지로 잘사는 내고장을 개척한다.
4. 우리 군민은 심신을 연마하여 건전한 취미와 정서순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5. 우리 군민은 전통문화를 계발하고 서로 화합하여 내 고향 사랑에 앞장선다.



군의 심볼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새 / 비둘기



군의 꽃 / 산철쭉



군정방침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

1. 특성을 살리는 경영행정
1. 보람을 이루는 농업발전
1. 모두가 잘사는 복지향상
1.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개발



장수의 노래

이기반 시
이준복 곡

mf F B^b C F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mf g A d C⁶ C F

골 마 다 즐 기 차 게 흘 러 넘 치 - 니

C C⁶ F D⁶ D g

정 답 게 아 - 름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C A⁶ d C F⁷ *mf*

행 복 의 씨 앓 뿌 러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F F B^b b^b F

고 - 거 룩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립

C g C *mf* F

게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이루세

(후렴)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탄신 429주년 기념 · 제36회 군민의 날

의암 주논개 대축제 일정표



구분	행사내용	장소	시간
9_26 (금)	■군민체육대회(10종목) 축구/배구/씨름/협동줄넘기/삼절 마라톤/공차고돌아오기/투호/ 고리걸기/400m계주/공차넣기	공설운동장	09:00~17:00
	■영화의 밤	의암공원	19:00~21:00
9_27 (토)	■KBS전국노래자랑	의암사 잔디광장	13:00~15:00
	■군민 퍼레이드	의암공원	18:10~19:00
	■전야제 전야 축하공연/불꽃놀이	의암공원	19:00~22:00
9_28 (일)	■주논개 제례봉행	의암사 영정각	09:00
	■기념식	의암공원	10:00
	■논개 충절무 공연	의암공원	11:00~11:20
	■논개골 실버 페스티벌 -노인 장기자랑 -연예인 초청공연	의암공원	11:30~13:30
	■호남좌도 농악시연	의암공원	13:30~15:00
	■주논개 선발대회	의암공원	15:30~18:30
	■군민화합 한마당 군민노래자랑/초청가수 공연/달집 태우기/ 강강 수월래	의암공원	19:00~22:00
부대 행사	■의암 백일장(의암사 경내) 9. 23 ■경노잔치(의암사 잔디광장) 9. 28 ■전북 남녀 궁도대회(벽계정 궁도장) 9. 28 ■논개배 탁구대회 (백화여고 강당) 9. 27~28	■한시 백일장(장수향교) 9. 28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노하 게이트볼장) 9. 28 ■군수배 테니스대회 (장수 테니스장) 9. 28 ■향토음식 맛자랑 품평회 (의암공원) 9. 28	
	■전통체험 여섯마당 (의암공원 주차장) 9. 27~9. 28 ■장수사과 특별 기획전 (의암공원 주차장) 9. 27~9. 28 ■전국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관내 행사장) 9. 27~9. 28 ■풍물야시장 (의암공원 주차장) 9. 27~9. 28 ■전시회- 사진/시화 (의암사 잔디광장) 9. 27~9. 28		

의 암 주 논

논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이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대대로 학덕이 높은 훈장집으로 동민의 존경을 받았던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특이하게도 논개는 4갑술(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 1574.9.3. 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낳은의 사투리)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 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나이



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 살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서 밥술개나 먹고 사는 김풍헌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민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헌의 제소로 장수관아로 끌려가 재판관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회 현감이었다. 최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 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회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현감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툼툼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깊이 새겼다.

세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 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회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 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회의 외침 중 가장 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중인 최경회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만났다. 실로 2년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강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부대를 골(鶻)자부대로 이름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회가 이끄는 호남 출신 의병들의 성 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회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억누르고 한시 바빠 진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남북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



개 의 일 대 기

절을 겪기도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사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에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성은 아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회, 김천일, 고종후 등 진주성 3장사는 성이 함락되는데 대한 책임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병사의 엄명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축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축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불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 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 가다가 발길을 돌려 축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



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 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 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식 사 (式 辭)

오늘은 이덕(二德)·삼절(三節)·오의(五義)의 고장 장수에서 정신적 지주로 숭앙하는 의암주논개님의 탄신 429주가 되는 뜻깊은 날이며 이날을 기리고자 군민의 날로 제정한 지 제36회가 되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한 축제 행사에 바쁘심을 뒤로 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군민과 더불어 먼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참해 주신 출향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최고 영예인 군민의장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논개님의 순국을 충·의·열(忠·義·烈)로 기리는 이유는 논개님이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임란 당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여러 장수들이 죽음을 택한 것은 그들이 국은을 두터이 입어왔던 사대부들이었기 때문에 국난을 당하여 살신보국함은 봉건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논개님은 7만여 성민을 비롯 성이 초토화된 현장에서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졌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원수였던 왜장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40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논개님의 행적과 인물됨을 사람들의 기억과 상상력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 나면서 충절의 표상으로 많은 국민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논개님이야말로 역사속의 인물이면서도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는 의녀(義女)입니다.

올해의 행사는 제례봉행을 비롯 주논개 선발대회 등 20여 다채로운 행사가 의암공원을 비롯하여 군내일원에서 3일간에 걸쳐 군민과 출향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잔치마당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논개 대축제 행사를 계기로 모두 화합하여 힘을 합치면 이 고장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암주논개 대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하오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28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김진영

기념사 (記 念 辭)



희망이 넘치는 장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논개의인의 탄신 429주년과 제36회 군민의 날입니다. 먼저 긴 장마와 낮은 기온속에서 냉해 피해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군민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이럴 때 일수록 군민 모두가 희망의 미래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로 『장수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평화롭고 순수한 군민성을 가져왔지만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구국에 앞장서 왔습니다. 진주 남강에서 논개의인의 죽음이 으뜸이요,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문태서·박춘실·전해산 장군 등을 비롯한 1919년 3.1운동 불교계 대표였던 백용성 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철의 여인 논개의인의 선양사업이 사당과 생가지의 유적 정화사업에 힘써 왔다면 이제 논개정신을 기리는데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장수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보입니다. 4통 5달의 교통 중심지와 호남의 주봉인 장안산 자락의 깨끗한 자연 환경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초원의 언덕에 말이 뛰놀고 『농업소득』의 기쁨이 마련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수의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군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논개대축제』에 주인이 되어 일등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갑시다.

오늘만이라도 냉해피해 등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박수치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듭시다. 돌아가는 시간까지 좋은 추억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3년 9월 28일

장수군수 장 재 영

환영사 (歡迎辭)



청정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천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충절의 고장, 논개 고을에서 탄신 429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의와 절개로 임진왜란 뿐 아니라 유사 이래 모든 전란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여인으로 길이 기억될 논개님은 우리의 국난극복과 한국여인의 표상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우리 고장의 자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이 행사가 국가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논개님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평가하여 그 숭고한 뜻과 업적이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개 대축제 행사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화합의 계기가 되는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9월 28일

KBS전주방송총국장 오 태 수

축 사 (祝 辭)



의암 주논개의 우국정신을 기리고 장수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논개대축제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고장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느 고장보다 많은 애국지사가 나와 국난을 물리치는데 목숨을 바쳤으며, 의암 주논개님은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왜장과 함께 진주남강에 몸을 던져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쳐 순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열입니다.

더욱이 이 고장에는 병화 속에서도 왜적조차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는 장수향교를 비롯하여 의암사, 타루비 등 유적이 보존되어 있으며 예로부터 60령고개의 일화를 간직하고 있는 영남과 호남간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고장에 사는 여러분은 역사속에 빛나는 조상들의 유산과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 내일의 번영되고 살기좋은 장수군을 가꾸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장수군의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이를 소득화하고 오늘의 논개대축제도 훌륭한 전통문화 상품을 육성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슬기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장수군은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 등 어느 때 보다도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미래의 보람과 영광으로 맞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똘똘 뭉쳐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수 군민의 날이 군민 모두의 화합과 내일의 꿈을 키워 가는 값지고 신명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2003년 9월 28일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축 사 (祝 辭)

- 충절의 기상이 어려운 오늘을
극복하는 계기로 -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고 넉넉한 이웃사랑으로 풍성한 정(情)이 넘치는 계절이 문밖에 와 있습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는 담장 너머 수줍듯이 고개를 내밀고, 대청마루 밑에서 찌르르 울어대는 풀벌레소리는 어느새 가을이 소리없이 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장수는 의암 주논개님을 비롯한 열녀 원씨 부인, 정인승 선생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고귀한 기상과 충절이 넘쳐흐르는 의와 충절의 고장입니다. 아름다운 심산유곡(深山幽谷)과 함께 충효의 전통은 장수인의 긍지이며 자부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주논개님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선양하고, 장수군민의 화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의암 주논개대 축제와 장수군민의 날 행사'가 장수정신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완연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흙탕물결 잇빨 아삭이며 겨레의 가슴에 높이든 햇불, 영원한 성녀 구원의 여신입니다' 라고 노래한 우리고장 향토시인 고두영님의 시처럼 논개님의 나라 사랑은 지난날 모진 바람에도 다시 피어나는 들꽃처럼 장수군민들의 정신 속에 꽃피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인한 고령화, 냉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등으로 풍요롭고 넉넉해야 할 가을 들녘의 농촌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또한 한·칠레 FTA비준, WTO농업협상 등 험준한 파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난(國難)때마다 충효와 충절을 바탕으로 분연히 일어선 우리 장수인의 의지와 기개가 살아있는 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해 봅니다.

앞으로 3~4년 후면 장계면에 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경주마육성목장이 들어서고 천천면 월곡리에는 국제 규격을 갖춘 승마장이 조성됩니다. 장수가 말의 고장으로 탈바꿈하면 장수 사과와 함께 장수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 우리 모두 오늘을 인내하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함께 즐기는 소중한 자리로 잠시나마 지친 여러분의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대동(大同)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주논개님의 생애와 정신을 잘못 알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계도 이 자리를 계기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논개님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조국이 지녔던 많은 미덕과 이웃들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역사적 책무도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논개정신선양회 김진영 회장님을 비롯한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 그 외 많은 분들께도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28일

국회의원 정 세 균

축 사 (祝 辭)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및 제36회 군민의 날」을 맞아, 장수군민의 자긍심과 대화합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갈 실로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랑스런 군민의 날을 군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경축해 마지 않으며,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논개대축제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청정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깊은 애향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개방과 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의 농업은 UR협상 이후 농산물 수입의 급증과 농축산물 가격폭락 및 가격 불안정 그리고 계속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등으로 농심의 고통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유래없는 잦은 비와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작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태풍 '매미'의 피해는 농촌과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의회는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에 힘을 모으고자 농가, 행정, 그리고 농협이 함께 고민하면서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위한 농업경영회생사업 육성기금 10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만 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장으로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농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농가경영회생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의 건, 이장 수당 인상을 위한 공청회, 자매결연 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로 농·특산물 판매실적 거양, 품목별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누락분 추가 조사 실시, 경노당 노인을 위한 여가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의 절박한 현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새로운 특화 작목개발이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농업 환경에 적응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켜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인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힘차게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및 제36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의 역량과 슬기를 모으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와,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공으로 자랑스런 군민의 장을 수여 받으신 두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그동안 오늘의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28일

장수군의의회 의장 김 홍 기



축 사 (祝 辭)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넉넉해지는 좋은 계절에,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29주년을 기리는 축제와 함께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유독 많은 비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농사를 잘 마무리하신 장수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 졌으나,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는 빠르게 퇴색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로운 이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들의 높은 뜻을 계속 이어오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우리 고유의 건전한 정신문화를 지키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전통의 계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민선이후 자치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고유의 문화축제가 당초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별다른 특색없이 소비 지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반하여,

장수군민 여러분의 의로움에 대한 각별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여 축제가 알차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정신이 귀한 관광자원이 되고 나아가서는 군민의 소득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의 날을 축하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주논개 대축제가 널리 알려지고 장수의 의로운 정신이 이 나라 곳곳에 확산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 철 갑

의암 주논개의 유적



▲ 의암사



▲ 논개 성장향수명비



▲ 의암 주논개 생가지



▲ 논개석상



▲ 생가지 사적불망비



▲ 의암사 기념관



▲ 최경희장군추모비



▲ 의랑루

의암 주논개대축제 발자취



의암 주는개 대축제



장수의 표상(二德 · 三節 · 五義)

이덕(二德)



◇정신재 백장(靜愼濟 白莊)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 ~ 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는 明允,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原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 (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 (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제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 1828. 월강사 창건 :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회 등을 배향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면 금덕리)



◇방촌 황희(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 ~ 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 (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 · 예조 · 병조 · 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영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영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방촌 황희 선생 동상(장수읍 방촌공원 내)

삼절(三節)



▲ 의암사(장수읍 두산리)

◇ 의암 주는개(義巖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 (4甲戌)
- 1591. 장수현감 최경회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회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순절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巖"이라 새김(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최진한)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축석의기 논개생장향수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는개랑 생가지사적불망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5.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96.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2000. 생가지 현위치 이전
- 기록
- 1621. 어우야담 :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 오두인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헌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에미 논개, 1997. 장수의 표상



▲ 장수향교(장수읍 장수리)

◇ 충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인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칼로 위협하며, 성전을 불사르려 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그 기개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 타루공원(천천면 장판리)

◇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판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말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책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핏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통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헌승이 순의리 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 통인 :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장수의 표상(二德 · 三節 · 五義)

오의(五義)



◀ 의사 전해산 추모비
(번암면 노단리)

- ◇ 전해산 장군 (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 1885. 번암 대론 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泓,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 등 3년 71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번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 의병대장 문태서 · 박춘실 전적비
(계북면 양악리)

- ◇ 문태서 장군 (文泰瑞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 1897. 계북 당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75. 계북면 백암 출생, 1914. 6. 4 전주 형무소 자결
 - 1905. 을사보호조약에 분개, 용담 구봉산 등지에서 의병 활동
 - 1905. 5년간 60여 차례 전투
 - 1977.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 (김상두)



▲ 백용성 조사 생가지-죽림정사(번암면 죽림리)

- ◇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번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原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혜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허비 건립 (번암 죽림)



◀ 정인승 선생 유허비
(계북면 양악리)

- ◇ 정인승 박사(鄭寅承 博士)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동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허비 건립(계북 양악)

우리고장 관광명소



▲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종산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억새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와 같다.



▲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있다.



▲ 방화동 가족휴가촌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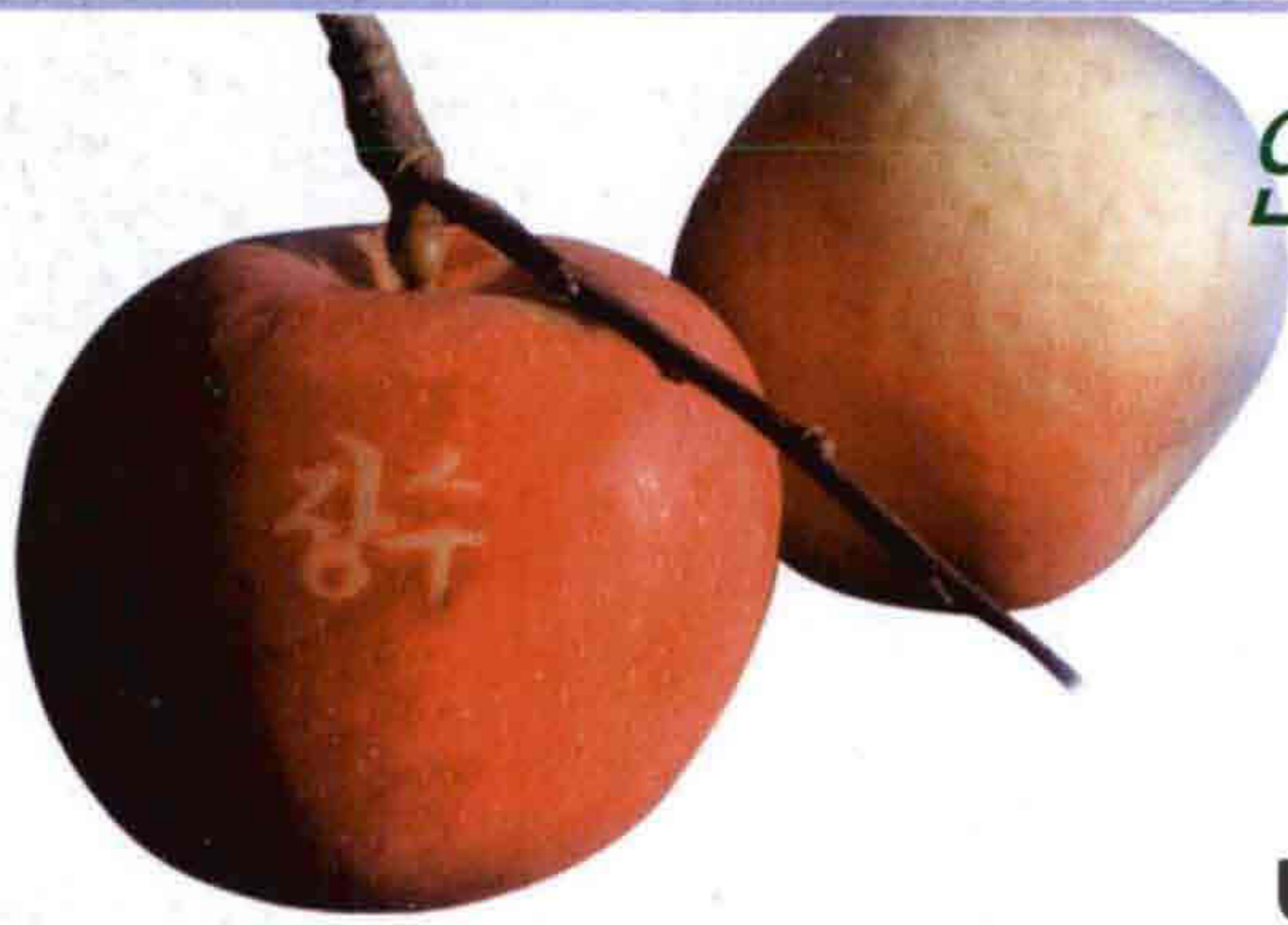
▲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연수의 집, 산막, 물·눈썰매장, 물놀이장, 잔디광장 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 토옥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호쾌한 질주속의 짜릿한 승부

대지를 박차고 질주하는 경주마들의 거친 숨소리-
환호의 물결과 환성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곳
서울경마공원에서 스릴의 쾌감을 만끽해 보십시오!



안심하고 드십시오.

“청정 장수고을 농·특산물”



농협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



“그 중심에 농협이 서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지부장	박길현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강영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성근	



HACCP 및 ISO2001획득

사계절 맑은 공기와 자연 암반수를 음용하며,
영양이 풍부한 초원에서 사육하므로 지방량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여,
육색이 뛰어나 담백한 맛으로 옛맛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생녹차먹인
장수돼지



장수한우

천혜의 자연속에서 자랐습니다.
장수는 자연이 살아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자연과 과학이 조화된 사양관리로
육질과 고기맛이 월등히 좋습니다.
위생적이고 항상 싱싱한 생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최병옥

풍요로운 장수가꾸기에 앞장서는
장수읍 번영회·장수읍 번영 장학재단

장수읍 번영회



We Serve

우리는 봉사한다

FY2003-4 회장 주제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하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전북)지구
장수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종국



광공형년회

회훈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회	장 :	강	중	호	직 전 회	장 :	장	영	수
부	회	장 :	박	태	부	회	장 :	허	윤
사	무	장 :	신	의	총	무	부	장 :	류
환	경	부	장 :	박	영	군	부	장 :	마
문	화	부	장 :	최	영	봉	사	부	장 :
				봉					준



2003년 9월 20일 인쇄
2003년 9월 23일 발행

발행인 / 김진영

발행처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인쇄처 / 은강기획

TEL : (063)352-1773 FAX : 351-0855

E-mail : ek1775@hanmail.net

논 개

수주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붓는 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릿답든 그 蛾眉
놉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가튼 입설!
[죽음]을 입맛추엇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물은
기리기리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